

김두식



법학이 불편했던

이류 법학자의 진실한 고백

《헌법의 풍경》낸 소장 법학자 김두식 한동대 교수

뻔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물론 이론의 여지없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들은 법을 통해 국가의 폭력, 사회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들 대부분은 두 번째 질문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국가이므로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으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에 동의한다. '주먹'이라는 단어를 '돈'으로 바꾼 채, 돈 있는 자 앞에서 무력한 '헌법의 풍경'은 우울하기만 하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일까.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헌법의 풍경》의 저자 김두식(37) 교수의 말이 뜻밖이다.

"그동안 승자의 일방적인 폭력이 지배하는 까닭에 표면상 평온해 보이는 사회를 '법의 지배'로 오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의 탈을 쓴 폭력의 지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신의 명령'과 같은 절대적인 규범이 사라진 세상에서 정의란 결국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쫓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 법, 법률가,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는 책에서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 특권계급이 된 판·검사, 변호사들의 세계를 날

카롭게 파헤친다. 또한 묵비권 행사, 평등에 대한 권리 등이 어떻게 무시되는지 흥미롭게(?) 설명한다. 가령 특권이 내면화되는 사법연수원, 명령과 군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받은 장교훈련 기간, 사실상 고문을 묵인하는 등 괴물국가의 수족이 된 판·검사 등을 다루고 있는 3장 ‘법률가의 탄생’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내부고발 한번 독하게 했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알면서도 쉬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법조 내부의 충격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또 책 내용만 보고 저를 매우 과격하거나 용감한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법조계에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이유 법률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조계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한 다소 관조적인 입장에서, 사건 수임 등 당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김 교수는 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시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아니 그건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행히 1997년과 1998년 여러 번의 법조비리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그 이전까지 관행처럼 받아들여지던 법조계의 여러 폐습들이 대부분 정화될 수 있었다.

“변호사들에게 공짜 술을 받아 마시거나, 판·검사실 운영비조로 약간의 금품을 수수하던 관행들이 그대에 대부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조비리 사건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권의식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구요. 이들은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정의의 이룰 책임은 일반인들도 떠맡아야 한다. 시민들이 ‘권위 위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된 것은 법률가들의 책임이 큰 게 사실이지만, 시민들 자신이 너무 쉽게 자기 권리들을 포기해 온 것도 문제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을 너무 어려운 것 또는 전문가의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일단 기본적인 법정신을 알아보려는 자세와 함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힘없는 내가 별 수 있나. 그냥 당하고 살아야지’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써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잘 찾아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워줄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권리를 찾는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김 교수는 참 먼 길을 돌아 왔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음 앞에 서》를 읽고 나치 독일에 대항하다 목숨을 잃은 세계적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1906~1945) 목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던 조숙한 소년은 ‘시범 케이스’와 ‘연대책임’이라는 학내 폭력으로 얼룩진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키워야 했다. 김 교수는 법조인의 길은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방어능력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최소한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만 갖게 되면, 폭력이라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헌법의 풍경》에서 날날이 밝히고 있듯 법률가의 길은 그가 생각하

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두 번째로 본사 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까지 했던 김 교수는 그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법복을 벗고 말았다. 표면상의 이유는 자신보다 뛰어난 아내를 외조하며 전업주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진심은 법조계에 대한 혐오였다.

다행히 그에게는 묵묵히 그의 결정을 지지해 준 아내가 있었다. 한번은 집안일로 일종의 주부 우울증에 걸리자, “나가서 뭐든 하고 싶은 걸 하고 오라”며 아내는 박 교수에게 100달러를 쥐어줬다. 그 돈을 들고 나가서 마음대로 책 사 보고, 영화 보고, 놀고 들어오니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는 우리 집안의 주력이고, 저는 일종의 보조자인 셈입니다. 아내는 공부도 저보다 열 배는 잘했고,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지요. 제가 헌신적이라서 아내 쪽을 도운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더 탁월한 사람 쪽을 밀기로 한 것뿐이고, 현실적으로도 제가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저에게 알려줌으로써 차별 문제에 눈을 뜨게 도와주기도 했고, 미국에서 다양한 책을 읽을 기회를 제공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아내입니다.”

김 교수가 이번에 법에 관한 책을 쓰기는 했지만, 그가 정말 쓰고 싶은 것은 ‘평화’에 관한 책이다. 첫 번째 책인 《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도 그런 주제였다. 김 교수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평화’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동서양 선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을 계획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헌법의 풍경》김두식 지음 | 교양인 | 312쪽 | 값 12,000원